

교회 소식

- 예배당에,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인도하며 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 매일성경 배송이 늦어져 첫 주 분을 복사해 드립니다.
이번 주중에 받는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송은주 집사 (시 19)
- 친교: TBA

예배 안내

- 주일예배:** 1:30pm, YouTube
- English Service:** 12pm, Zoom
- 새벽기도 (월-토):** 6pm, YouTube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10am, Zoom
- 중 · 고등부 (Youth Group) 예배:** 12pm, Zoom
- 주일예배처소: 448 Bedford Rd, Armonk, NY 10504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817 3134 4066 (Sunday School)
939 020 5125 (EM/Youth)

성경 공부 및 모임

- 역사서와 선지서 성경공부:** 수요일 8pm, Zoom
- 중 · 고등부 성경공부:** 금요일, 8pm, Zoom
- 구역모임:** TBA

섬기는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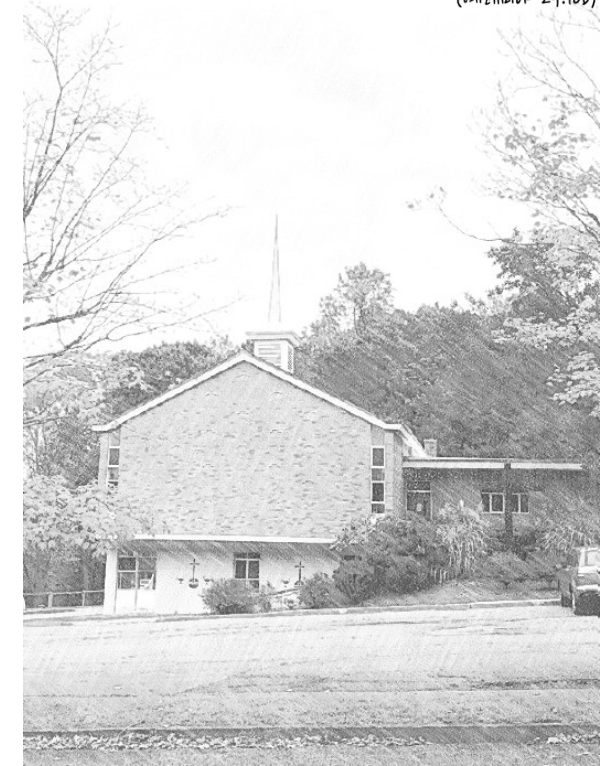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기도

-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에베소서 29:10b)



교회 연락처

- 주소: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 전화번호: (914) 874-3606
- Email: nyskch@gmail.com
- Homepage: www.nysekwang.org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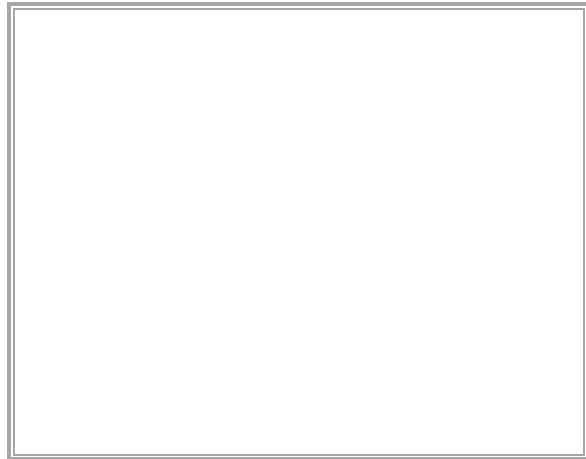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2021년 표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렘 29:10B (I WILL FULFILL MY GRACIOUS PROMISE, JER 29:10B)

Order of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Deut. 9: 18-21, 25-29**----- Leader
 Sermon----- **“The 3 P’s – Fall Prostrate,
 Pray, For the People”** -----Pastor Kim
 Reflection Prayer-----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1시 30분>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 인도자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95(82)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 다함께
Hymn
 대표기도 ----- 시 22:23-31 ----- 성창현 집사
Praye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마태복음 18:1-14**----- 인도자
Word of God
 설교----- **“너희가 돌이켜
 Sermon 어린 아이들과 같이”** ----- 이민영 목사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563(411) “예수 사랑하심을”----- 다함께
Hymn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지난 주 설교 말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마태복음 17: 22-27

“반 세겔”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가 하나님께 드릴 속전, 즉 “목숨 값”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위한 세금이기도 합니다. 처음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을 때에도(출 30:12-16),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지을 때에도(느 10:32) 속전을 내 성막과 성전을 돌보게 했습니다.

속전을 내는 것으로 백성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해주시고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 삼으신 표시로 속전을 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들이시니 속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속전을 내지 않느냐? 내신다” 는 질문과 응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소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십니다.

성전세 내서 규율을 지키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고기 입에서 은전을 얻은 신기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목숨을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대신 값을 치름으로 타인이었던 우리가 아들 되었습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독생자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히 2:9-10).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것을 믿는 것으로 아들이 되었지만, 세상에서 책임을 다하고 선하게 행함으로 아들답게 살아갑니다. 아들 된 특권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도구로 내어드립니다.

은전 한 닢이 없으셔서 낚시하게 하십니다. 머리 돌 곳 없이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들 됨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어든” 떡을 만들고, 기적을 행하고, 사탄에게 영화를 구하라는 시험 가운데 아들이신 주님은 “아들이시기에” 말씀으로 살고, 시험하지 않아도 신뢰하며, 하나님만 경배하셨습니다(마 4장 참조).

우리의 고난과 약함도 하나님이 될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들이어든” 복을 받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이기에”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기적이 신기하긴 하지만 그물이 찢어질 만한 수확이나 물 위를 걷는 기적에 비하면 초라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아들 됨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의 크기로 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많은 고기도 그걸로 배부르고 성공하라는 게 아니고, 살과 피를 주신 십자가 대속을 믿어 생명을 얻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주신 기적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이가 주시는 은혜라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무한한 사랑으로 주신 것이고, 감사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고난절을 맞는 우리도 주님의 고난으로 생명 얻은 것을 다시 새기고, 가진 것 높은 것 그러나 헛된 것을 자랑한 것을 내려놓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시다.